

---

#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(안)

- “위기를 기회로”, 튼튼한 소부장 공급망 구축 -

---

2020. 5. 13.

관계부처 합동

# 순 서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소부장 기술과 기업의 현위치 .....	2
III. 추진 방향 .....	7
IV.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.....	8
V. 특화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방안 .....	9
VI. 향후일정 .....	16

## I. 추진배경

- ◆ 글로벌 가치사슬(GVC)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핵심품목 중심의 튼튼한 공급망 구축

### ◇ 핵심전략기술 확보가 공급망 안정화 및 글로벌화의 Key

- ‘美·中 무역분쟁’, ‘일본 수출규제’, ‘코로나19 확산’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(내재화·지역화) 가속화 전망
  - \* 역내 교역비중(‘11→’17) : 북미(48.6%→50.1%), 아시아(52.4%→53.1%), 유럽(66.6%→68.2%)
- 우리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핵심품목을 자립화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보유가 필수
-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시,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할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·관리할 필요

### ◇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할 역량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

-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쟁력 있는 소부장 전문기업이 부족
  - \* (美) 듀폰(메타 아라미드 70%), (日) 후지(TAC 필름 70%), (獨) 보쉬(자동차 모터 80%)
- 핵심기업군을 다수 육성함으로써 향후 고용창출, 공급망의 질적 도약 등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활력 주체 확보 가능

### ◇ 소부장 특별법 상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근거 마련(4.1일 시행)

- ▶ 제12조(핵심전략기술의 선정)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 선정
- ▶ 제13조(특화선도기업의 선정)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을 갖추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(유효기간 5년, 연장 가능)
- ▶ 16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 발전전략수립, 재정·금융 지원, 연구개발·인력양성·기반조성 지원, 분야별 전문가 파견, 특허 등 정보제공, 해외진출전략 지도·자문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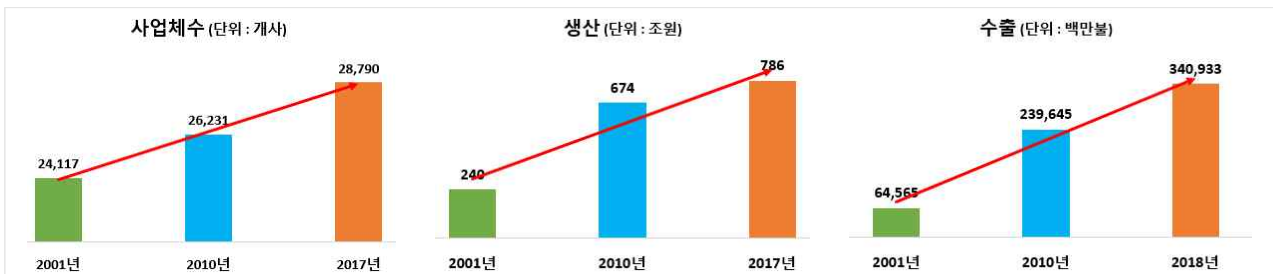
## Ⅱ. 소부장 기술과 기업의 현위치

◆ 산업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,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고 핵심 품목은 해외에 지속 의존중으로 기술력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가 관건

### 1 소재부품장비 현황

#### 가. 산업현황

□ 지난 20여년간 소부장 산업은 생산 3배('01년 240조원→'17년 786조원), 수출은 5배('01년 64,565억불→'18년 3,409억불)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



#### 나. 기술력 현황

□ 기술력에 있어서도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87%, 기술격차 1.3년 수준으로 선진국에 상당히 근접(산업기술 수준조사, KEIT(2018))

○ 그러나 100대 핵심품목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61%에 불과, 특히 반도체(38%), 디스플레이(50%) 분야 기술력이 취약

\* 100대 핵심전략기술 기술수준 조사(2019, 전략기획단)

○ 핵심품목군에 대한 기술력이 취약\*하여 해외로부터 수입에 크게 의존  
⇒ '19.7월, 日 수출규제시 공급망 위기 초래

\* OLED 패널 시장의 95.9% 점유중이나 핵심 소재인 파인메탈마스크 점유율 0% (日 전량수입)

#### <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기술수준 및 격차기간 >



## 다. 기업 현황

- 특정분야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\*들도 있으나, 전반적으로 선진국 기업 대비 규모나 점유율면에서 격차

\* (삼성, SK하이닉스) 반도체, (포스코) 자동차 강판, (엘지화학) 합성수지, (효성) 스판덱스 등

- (기업규모) 글로벌 Top 규모(매출기준)의 국내 소부장 기업은 15개에 불과(모두 대기업 계열사)하여 경쟁국 대비 수적 열세

< 포브스 선정 글로벌 2,000대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현황('19년) >

한국	미국	일본	중국	독일
15개	101개	88개	67개	20개
삼성전자, 현대모비스	3M, Intel	Denso, Sony	Baoshan Iron, Xiaomi	Basf, Siemens

- (시장점유율) 항공, 정밀기계 등 하이테크형 핵심품목 분야에서 일본, 미국, 독일 등 선진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
- 우리나라는 △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부품과 △1차금속, 석유화학 소재 등 대형 장치산업에 기반한 소재품목에 강점 보유

	일본	미국	독일	한국	중국(아세안)
<b>Global점유 50% 이상 (814개품목中)</b>	<b>283개</b> 화학소재 : 54개 (레지스트 등), 정밀기계 : 16개 (감속기 등)	<b>123개</b> 항공부품 : 20개 (가스엔진 등), 반도체장비 : 20개 (CVD장비 등)	<b>73개</b> 화학소재 : 12개 (바이오 등), 정밀기계 : 7개 (베어링 등)	<b>29개</b> 전자부품 : 14개 (DRAM 등) 금속소재 : 5개 (알루미늄 기판 등)	<b>94개</b> 범용소재·부품 : 44개 (동박, 탄소강 등)

\* 소재부품장비 한중일 분업구조 분석(2019, 산업연구원)

- 또한,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87%가 국내 내수에 의존적이며 대다수 소부장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매우 저조

\* 소재부품기업 거래구조('15): 1차벤더(29.1%), 2차벤더(32.2%), 3차벤더(25.7%)

- ①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97%가 수출실적 無, ②소재부품 해외생산 비중은 20% 초반에서 정체

\* ①수출실적 없는 전문기업 비중(%): ('14) 94 → ('16) 96 → ('18) 97

②소재부품 해외생산 비중: ('09)17.9% → ('11)23.6% → ('13)24.0% → ('16)21.9% → ('17)21.6

### 가. 기술·시장 진입 장벽 高

- **(소부장 특성) 고부가가치 핵심품목의 경우 미세한 기술장벽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**

\* (연료전지불소수지) 불소에틸렌(TFE) 단량체를 중합하여 제조하며, 오랜 실험과 반복을 통해 최적의 중합반응조건(열, 압력 등)을 찾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(日, 아사이 카세이)

- **(선발주자 시장 선점)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핵심기술력을 무기로 독과점 체제를 既 형성·시장선점**

- 수요기업은 공급안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기존 공급기업을 선호하여 동등한 성능의 제품 개발 이후에도 신규 진입 애로

\* 韓 A社は MLCC 제조용 초미세 세라믹소재 개발('18년) → 국내 수요기업 B社は 기존 일본 소재 사용

### 나. 민간 투자 유입이 어려운 사업구조

- **(先설비투자 後납품) 소부장 분야는 공급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先 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이후 수요기업이 테스트 및 구매를 검토**

- 최종 납품에 실패할 경우 모든 리스크를 공급기업이 부담하여 적극적 신규투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

\* 韓 C社 저반사필름 기술 확보 → 수요기업이 先설비투자 요구 → C社は 납품 불확실로 사업철수

- **(민간자본 투자 기피) 민간 투자자는 단기에 투자 회수가 어렵고 기술, 공급사슬, 수익구조가 복잡한 소부장 분야 투자 기피**

- 최근 6년간('14년~'19년) 벤처자금으로 790개 조합, 22조원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에도 불구하고, 소재부품 분야 펀드는 3개, 1,030억원에 불과

## 다. 글로벌 역량 부족

- (해외기술협력) 국내 개발 역량이 부족한 분야는 M&A, 해외기술도입, 국제공동 R&D 등이 필요하나 정보,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국내 기업 소극적

\* '18년 아웃바운드 M&A(건수): 美 515건, 日 126, 中 71, 韓 13 (S&P Capital)

- (해외마케팅) 대기업과 달리 중소·중견 기업의 경우 해외거점 부재, 해외 마케팅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수요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

-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영업이 필요하며 제품 납품이후에도 AS 등 사후관리 대응 필요

\* (美 GM) 해외 공급기업에게 미국 현지에서 신속한 대응(납품, AS 등) 기반 요구

\*\* (국내 공작기계 업계) 현지 기반 부재로 마케팅, 제품 AS 등이 어려워 해외진출 소극적

### < GVC 대응 구조 >



## 라. 규제대응 부담 가중

- (규제강화) 최근 몇 년간 대기, 화학물질 관련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규제 준수 이행 부담 가중

\* (대기) '19년에만 배출허용기준강화, 총량제 확대 입법,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·계절관리제 도입 등

\*\* (화학물질) 유해화학물질관리법('91) → 화관법·화평법 시행('15년, 규제강도·범위 확대)

- (중복규제)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복 점검 등 부처별 유사·중복 규제로 산업계 부담 및 과도한 행정비용 소모

\* (D社) 산안법·화관법 규정상 특정 설비와 물질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만(연1~4회), 불시·특별점검과 유사규제의 다기관 점검으로 기업의 규제 피로도 누적

## 정책 시사점

□ 日 수출규제 지속,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 
現 시점이 우리 소부장 산업의 한 단계 도약 또는 퇴보의 변곡점

☞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 
기회로 활용할 필요

☞ 국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별하고, 이를 개발·  
생산할 역량을 갖춘 국내 최고 기업을 선정(기업규모 무관)

□ 핵심기술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

☞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·생산·글로벌화 소과정을  
종합적 맞춤형 지원

※ 기존 정부주도 기업육성 프로그램은

- ① R&D 사업 중심, ② 소부장 핵심기술이 아닌 기업 규모 중심,  
③ 단일 부처 소관 중심 지원

☞ 정부가 5년간 밀착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100개內로 한정  
(추가 여부는 5년 후 성과를 고려하여 결정)

□ 소부장 기업의 적극적 혁신노력에 상응하여 정부 정책 연계

☞ 기업이 핵심기술개발, 설비 신증설, 인재채용, 글로벌 진출 등을 적극  
추진하고, 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기업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 지원

☞ 또한, 특화선도기업 핵심전략기술 분야 공급안정화와 해당 산업의  
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



### Ⅲ. 추진 방향

비전

기술자립, 공급망 안정을 통한 **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**

기본  
방향

· 국가 차원의 **핵심전략기술** 중점 관리

· 글로벌 수준의 **특화선도기업 100개** 육성

#### 핵심전략기술 선정

- ① **(선정기준)** 산업안보적 중요도 + 산업 파급효과
- ② **(기술도출)** 100대 기술(반도체17, 디플10, 자동차13, 기계금속38, 전기전자18, 화학4)
- ③ **(기술확보)** 기술개발, M&A 세액공제 지원, 특화선도기업 육성 등

#### 특화선도기업 육성

**총 100개社 선정**

##### ① 선정기준

- **기본역량:** 핵심전략기술 분야 보유역량(R&D비중, 지재산, 연구인력 등) + 기술의 중요도·난이도·수준 등
- **성장전략:** 기술혁신 전략 + 사업화·투자 전략 + 글로벌 진출 전략 평가

##### ② 지원방안

전용  
사업

- **(기술혁신)** 대규모 자율방식 R&D,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이전 등
- **(사업화)** 설비투자 저리대출, 성장지원펀드 우선지원, 세제지원 등
- **(글로벌화)** GVC 거점 구축, M&A 컨설팅, 온라인 마케팅
- **(규제특례)**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도입(신속·간단·일원화)

범부처  
패키지

- **프로젝트 기획-기술개발-실증-생산-판로 등 쏠주기 종합지원**  
: 각 부처 소관 100여개 기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식 지원 제공

모니터링  
/컨설팅

- **(기업성장)** 목표 이행점검 → 컨설팅 → 중간평가(3년차) → 최종평가(5년차)
- **(소통)** 기업 협의체 구성, 전용 홈페이지 운영(정부-기업, 기업-기업간 교류·협력)

## IV.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

### 1 추진 경과

- 대외의존도 등 산업 가치사슬 조사분석 → 전문가의견 수렴 →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0대 핵심전략품목 도출하고, 3차 경쟁력위원회 심의(1.22)
-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'100대 핵심전략품목'을 중심으로 후보기술 도출 및 수요기업 의견수렴·검토('20.1~4월)

### 2 선정 기준

- **(대상기술)** 개별 품목의 시장규모에 상관없이 주력산업·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정부 차원의 관리·지원이 필요한 기술
- **(평가기준)**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 ①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②산업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평가(특별법12조)

기 준		내 용
①산업 안보 중요도	국가안보	국가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·안보적 중요성
	기술수준	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
	산업규모	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
②산업 파급 효과	생산/투자	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
	시장전망	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

### 3 선정 결과(안)

- **(핵심전략기술)**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심 100대 기술 선정

< 6대 중점분야 핵심전략기술(안) >

분야	반도체	디스플레이	자동차	기계·금속	전기·전자	기초화학	합계
기술수	17	10	13	38	18	4	100

## V. 특화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방안

### 1 기업 선정 방안

#### < 기본 방향 >

- ◆ **(선정기준)**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분야  
기본역량 + 향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종합고려
  - ◆ **(선정방식)** 공개모집 →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4단계 종합평가  
(서면·현장·대면·종합평가 + 온라인공청회)
- ⇒ 이를 통해 ①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,  
②적극적·진취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을 선정

#### 가. 선정기준

##### ① 기본역량

- ① 핵심전략기술 관련 보유역량  
(연구개발비 비중, 지식재산권, 연구인력, 투자유치)
- ② 핵심전략기술 관련성·중요도·기술수준
- ③ 소부장 매출 비중

+

##### ② 성장전략

- ① 기술혁신 전략
- ② 사업화·투자 전략
- ③ 글로벌 진출 전략

※ 특별법 제13조(특화선도기업의 선정) 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 고려하여 선정  
1. 총 매출액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 및 총 매출액중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비중,  
2.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연구인력 보유현황, 3.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 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기술경쟁력, 경영 및 재무상황,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)

① **(기본역량)** 국내에 연구개발·생산 기반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,

- ① 핵심전략기술 분야 ①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(3%), ②지재권(5건),  
③전문연구인력(4인), ④투자유치(3억원) 등을 종합 평가(2개 이상은 반드시 충족)

\* 산업부 추경 R&D 참여기업 데이터, 중소기업기술통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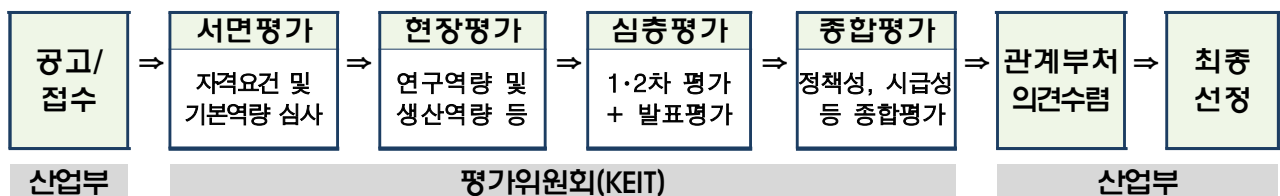
- ②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핵심전략기술 관련성, 중요도·난이도, 세계 최고 기술 대비 기술수준 등을 평가
- ③ 소부장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자격을 개방하되, 소부장 매출비중이 높을수록 우대

※ 단, 부도·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 및 가능성이 높은 기업, 공정거래위반·임금체불 등 위법행위 기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

- ② **(성장전략)** 현재 기업이 보유한 성장 기반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성장 전략에 대해 목표의 적극성, 전략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

전략	평가내용
①기술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기반)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, 보유 기술·인프라 수준 등</li> <li>▸ (전략) 핵심전략기술 분석 충실도, 자체/외부 기술확보 전략 구체성 등</li> </ul>
②사업화·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기반) 최근 3년간 투자실적, 투자실적 대비 효과, 영업이익률 등</li> <li>▸ (전략) CEO 의지, 구체적 투자계획, 자금 자체/외부조달 방안 등</li> </ul>
③글로벌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기반) 주요 품목 시장점유율, 수출처 현황, 해외진출 기반 등</li> <li>▸ (전략) 글로벌 시장 진출 시기, 규모 등 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등</li> </ul>

## 나. 선정절차



- ① **(공고)** 인터넷 공고(30일)를 통해 신청 기업이 ‘글로벌 전략계획서’ 제출\*
  - ② **(1차: 서면평가)** 전담기관(KEIT)이 기본자격요건 등 先검토하고,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기본역량+성장전략 서면평가(2배수內)
  - ③ **(2차: 현장평가)** 6대 분야별 현장실사단 구성하여 신청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역량 검증, 증빙서류 사실여부 등 확인(1.5배수 내외)
  - ④ **(3차: 심층평가)** 기술, 사업화,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(6개 분과별 10인내외)하여 기업 공개발표를 토대로 심층평가(1.2배수)
    - ‘사전평가 30%’\* + ‘발표평가 70%’을 종합하여 득점 우선순위로 특화선도기업 후보군 선정(1.2배수 내외)
- \* 1차 서면평가, 2차 현장평가 결과, 국내외 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검토
- ※ **국내외 온라인 공청회** : 국내외에 소부장 전문가를 모집하여 기업평가

  - (국내) 수요기업, 정부출연연구소, 대학 등 200명 내외
  - (국외) 재외한인과학자, 유관기관 해외파견 연구소 등 100명 내외
- ⑤ **(4차: 종합평가)** 6대 분야별 특화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해 정책성, 시급성, 전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 선정(1배수)
  - ⑥ **(최종선정)**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산업부가 최종 확정

### 3 기업 지원 방안

#### < 기본 방향 >

◆ 특화선도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정부 지원책으로 부족하거나 지원이 곤란한 영역은 전용사업 신설하여 파격적이고 강력하게 지원

\* 특별법 16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 발전전략수립, 재정·금융 지원, 연구개발·인력 양성·기반조성 지원, 분야별 전문가 파견, 특허 등 정보제공, 해외진출전략 지도·자문 등

○ 다만, 정부의 직접적 자금·세제지원은 특화선도기업 지정기간(5년) 동안 한시적으로 중견·중소 기업 중심으로 지원(R&D는 대·중견·중소 모두 지원)

#### < 주요 신설 전용사업 >

	기존 정부지원책		신설 전용사업
기술 개발	▶ R&D프로그램 별 제도적 제약 → 기업 수요를 100% 반영 곤란 → 리스크가 큰 분야는 R&D 기피	⇒	▶ 자율방식 대형 R&D ▶ 기업 민간 부담금 완화
사업화	▶ 중소/벤처기업 위주 자금 지원 → 민간투자금 쏠림 현상	⇒	▶ 중견·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융자, 펀드 우선지원
글로벌화	▶ 해외 현지 기반, 정보, 네트워크 부족 → 해외진출·M&A 소극적	⇒	▶ 현지 거점 구축 지원, M&A 컨설팅, 온라인 마케팅 강화
규제 특례	▶ 개별 기업의 단발성 규제 대응 → 규제대응 부담 및 해결 어려움	⇒	▶ 규제 하이패스 지원(신속·간단·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)
홍보	▶ 개별 기업의 자체 홍보 중심 → 소부장 기업 특성상 인지도 低	⇒	▶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 지원

\*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모 확정

◆ 관계부처가 현재 시행중인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특화선도기업에 우대 지원함으로써 별도 프로그램 신설없이 범부처 종합 맞춤형 지원

○ 또한, 특화선도기업 선정 이후에도 정부 지원책 지속 발굴 및 지원

◆ “특화선도기업(법률 명칭)”의 브랜드파워 형성을 위해 고유명칭 선정 추진

## 가. 파격적인 전용 프로그램 신설

### ① (기술혁신) 특화선도기업 기술개발 우선지원 및 공공기관 인프라 전폭 지원

#### ① (R&D)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자율 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 (기업당 최대 50억원/년)

\* 기업규모, 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

- 특화선도기업이 원하는 기간, 방식, 컨소시엄\*으로 사업기획 및 R&D 추진하되, 과제의 중복 여부 등은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

\* 국내/해외 수요기업과 공동 R&D, 국내 협력업체와의 공동 R&D 등

- 기술격차가 큰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추진하도록 기업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

\* (소부장특별법 제60조)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

-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·중견기업 (現) 각 67%, 50% → (改) 35% 이상, 중소기업은 (現) 33% → (改) 20%이상으로 완화, 현금 부담비중은 모두 10%로 이상으로 완화

#### < 민간 부담비율 변경(안) >

기업유형	민간부담금		현금부담비중	
	현행	변경	현행	변경
대기업	67%이상	35%이상	60%	10%이상
중견기업	50%이상		50%	
중소기업	33%이상	20%이상	40%	

#### ② (공공인프라) 융합혁신지원단\*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, 기술자문, 인력파견, 장비지원 등 최우선 지원

\* 출연연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(12개 출연연 + 20개 전문연)

- 아울러, 출연연 원천기술 개발 시 특화선도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술개발 추진

② **(사업화)** 핵심전략기술 분야는 사업화 위험도가 높고 투자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

① (융자)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(산·기은), 환경·안전투자지원자금(산·기은) 등을 통해 중소·중견 특화선도기업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\*

\* 금리우대(중소 △0.7%p, 중견 △0.6%p), 전결권 하향 등

② (펀드) 소부장 성장지원펀드(4,000억원)를 활용하여 중소·중견 특화선도기업의 M&A, 설비투자 우선지원

③ (세제) 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(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설 추진)

④ (상장특례) 비상장 특화선도기업이 원하는 경우, 기술특례상장 허용

③ **(글로벌화)** 해외 수요기업과의 유무형 네트워크 강화

① (GVC 거점 구축) 마케팅, AS 등을 위해 컨설팅, 현지 착근형 인프라 구축 등 우선지원\*, 추후 거점 확대시 특화선도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

\* 해외 GP 센터 활용(코트라, 7개소), 화상상담, 수출인큐베이터(중진공) 등

② (M&A 지원) 투자 기반의 다양한 기술거래(M&A, 소수지분투자, 합작, 기술이전 등)를 지원

○ 국내외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를 조사·발굴하고,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투자계약 체결 유도

③ (온라인 마케팅) MD협회 등 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 B2B 사이트(E-bay, 알리바바 등)에 특화선도기업 제품 홍보

○ 아울러, 해외시장정보를 특화선도기업에게 제공하고, 기업별 On-line 마케팅 전략 컨설팅 지원



④ **(규제특례)** 특화선도기업 “규제 하이패스 제도” 도입하여 신속하고  
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

- ① (창구 일원화) 특화선도기업의 규제애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 
창구 일원화하여 애로접수, 부처협의 및 활용 가능한 컨설팅 사업\* 등 안내

\* (환경부) 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 지원, (산업부) 환경규제 대응 애로 맞춤형 기업지원 등

- ② (신속처리) 수급대응센터에 접수된 애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15일내  
개선 여부를 회신토록하고, 개선 가능한 사안은 지체없이 처리

- 특히, 화평·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 특화  
선도기업은 패스트트랙 의무 적용

- ③ (제도개선) 모든 규제 애로사항은 경쟁력委 산하 제도개선 전문  
위원회\*에서 검토하여 유사·중복 규제여부, 과도한 규제 여부 검토

\* 환경, 노동, 세제 등 산학연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('19.10월~)

-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부처에 중점검토를  
요청하고 경쟁력위원회를 거쳐 개선 추진

⑤ **(국가 브랜드화)** 국가 차원에서 특화선도기업을 우리나라 대표 소부장  
기업으로 적극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화 추진

- ① 법률상 명칭인 “특화선도기업”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 
△ 고유 명칭 선정\*, △ 고유 마크 제작\*, △ 홍보대사 위촉

\* 기업선정 공고 및 신청 접수 시, 고유 명칭·마크에 대해 의견수렴하여 최종 결정

- ② 정부가 기획기사, TV방송,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 
특화선도기업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

\* 소부장 기업은 대부분 B2B 기업으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인지도가 低

- ③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훈·포장 수여 및 성과  
사례홍보 등 기업의 자긍심고취 및 대내외 인지도 제고 환경 조성



## 나. 범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

- **(지원내역)** R&D, 인력, 자금, 투자 등 관계 부처가 운영중인 100여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범부처 협업하에 특화선도기업에 종합지원

주요 지원 프로그램			
기획 ▶ 기술개발 ▶ 실증 ▶ 생산 ▶ 판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			
<b>R&amp;D 등 정부출연</b>	<b>발전전략 수립</b> ▶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▶ 수요-공급기업 공동로드맵 등	<b>기술개발</b> ▶ 소부장 R&D, IP R&D, 국제공동 등 ▶ 지역혁신 LAB 인력양성 등	<b>실증·양산</b> ▶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▶ 신뢰성·양산평가, 보증 등
<b>금융·투자·세제</b>	<b>융자·대출</b> ▶ 시설투자, 운영자금 ▶ 수출자금 융자	<b>투자·M&amp;A</b> ▶ 투자펀드, 정책금융 ▶ 국내외 M&A 정보제공, 알선·중개, 자금지원, 기술 상용화 등	<b>세제</b> ▶ R&D·시설투자/M&A 등 세액공제, 해외전문인력 소득공제 등
<b>공공 인프라</b>	<b>출연연 기술·인력·장비</b> ▶ 출연연 보유 기술, 인력, 장비 기업 이전·사용	<b>인증·표준화</b> ▶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▶ 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지원	<b>수출·판로</b> ▶ 수출바우처, 해외마케팅, 전시회 등
<b>규제 등 애로해소</b>	<b>인허가</b> ▶ 환경 등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▶ 지자체 등 규제 즉결처리	<b>각종 특례</b> ▶ 특별연장근로 인가, 장비도입절차 간소화, 청년의무고용 예외 등	<b>입지</b> ▶ 특화단지 지정,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배정, 임대전용산단 우선 입주

- **(방식)** 기업-전담기관-산업부-관계부처간 협업하에 메뉴판식 종합지원

- (1단계) 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5년간의 종합전략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 → 메뉴판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책 선택\*

\* 전담기관은 기업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

- (2단계) 산업부-관계부처-전담기관간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 확정



## 다. 성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

- **(기업성장 지원)** 전략계획서에 따라 연 단위 성장목표 설정 → 기업 성장 현황 점검(연 2회) → 목표 미달성 기업은 집중 컨설팅
  - 전담기관의 담당자 지정하여 5년간 밀착지원하고 기업의 매출, 고용,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성과 데이터를 DB화하여 맞춤형 성장전략 컨설팅
  - 선정 후 3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기업 성장상황을 점검하고, 5년차 최종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
    - \* 중간평가 미흡 기업은 선정 취소, 종합평가 우수사례는 홍보
  - 당초 전략계획서 대비 대규모 사업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와 사업조정 협의, 담합·불공정 거래 등 부당 행위시 특화선도기업 취소 가능
- **(소통 지원)** 선정된 기업간 “특화선도기업 협의체”를 구성하여 기업간 교류와 소통 및 對정부 정책건의 창구로 활용
  - 또한, 특화선도기업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부 시행 정책 정보 제공, 수요기업 및 일반인 대상 기업 채용정보, 제품정보 등 제공

## V. 향후 일정

- **[핵심전략기술 고시]** ‘20.5월, 산업부가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’ 고시
  - \*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, 선정·재검토·판정 세부절차, 재검토 시기 등

- **[특화선도기업 선정]** ‘20.5월~3/4분기, 제1차 기업 선정 프로세스 진행

기업 간담회 등 (~'20.4월)	선정공고 (20.5월)	선정평가 (20.5~7월)	최종확정 (20.3/4분기)
의견수렴	사업공고(30일)	서면→현장→ 심층→종합	산업부

\* '21년까지 3~4차례 특화선도기업 추가 선정 추진

- **[출범식]** ‘20. 3/4분기, 특화선도기업 출범식

\* ① 특화선도기업 선정서 수여, 홍보대사 위촉,  
② 국내외 글로벌 수요·공급 기업 초청, 성장 전략 공유